

새터민의 자아존중감 및 내적귀인성향에 따른 사회문화적 적응*

Social-Cultur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by Self-Esteem and Internal Attribution*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진 미 정

교수 이 순 형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Meejung Chin

Professor : SoonHyung Lee

목 차

I. 문제제기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ocial-cultural adjustment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 respect to their self-esteem and internal attribution. The data were obtained from a survey of 195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d recently entered South Korea. The respondents had moderate difficulties in their social-cultural adjustment consisting of social activity restriction, discrimination, and social exclusion. Their social-cultural adjustmen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ernal attribution. Those with internal attribution tended to have fewer problems in adjusting to the social systems and culture of South Ko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psychological resources play a role in enhancing the social-cultural adjustments of North Korean defectors.

주제어(Key Words): 새터민(North Korean defectors), 사회문화적 적응(social-cultural adjustment), 자아존중감(self-esteem), 내적귀인(internal attribution)

1. 문제제기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 위기 이후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새터민의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3년까지 한국에 온 새터민의 숫자는 매년 한 자리 숫자에 불과

하였으나 94년에는 50명을 넘었고, 99년에는 100명을 돌파하여 세 자리 숫자가 되었다. 2002년에는 천 명이 넘는 새터민이 입국하였고 2004년 마지막 통계에는 거의 이천 명에 달하는 이탈주민이 입국하여, 2004년 현재 남한에는 전국적으로 약 7000명의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다(통일부, 2005).

Corresponding Author: Meejung Ch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illim-dong, Gwanak-gu, San 56-1, 151-742, Korea Tel: 82-2-880-1454 Fax: 82-2-871-2506 E-mail: mchin@snu.ac.kr

* 본 논문은 2004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급속한 새터민의 증가는 새터민의 삶과 적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물론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새터민에 대한 관심은 이들의 경험과 적응을 이해하는 것이 통일 후 사회통합의 과정을 예견하고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새터민들의 경험은 통일 후 북한주민들이 남한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면서 경험하게 될 문제들을 짐작하게 해주는 단서가 되며, 이들의 성공적인 적응은 통일 후 남북한 사회의 심리적 통합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새터민 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들이 입국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적응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공통의 과제로 삼고 있다.

새터민 집단은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이해 역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새터민의 특수한 경험세계는 탈북 전 북한에서의 경험, 탈북 후 제3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남한에서의 경험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탈북과 입국과정에서 겪은 새터민의 경험이 현재 남한사회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이들의 적응을 서로 다른 성격의 문화가 서로 만나 변화 혹은 통합되어가는 과정, 즉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문화적응이란 쉽게 말해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와 접촉할 때 경험하는 변화를 말한다. 집단적 차원의 문화적응은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체제상의 변화를 지칭하는 반면, 개인적 차원의 문화적응은 개인의 행동, 가치, 정체감, 태도상의 변화를 지칭한다(Berry, 1988).

개인적 차원의 문화적응을 살펴보면, 개인이 새로운 문화를 무조건 흡수하거나 이전의 가치를 새로운 가치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문화의 요구를 선택하고 수정하는 통합적 과정으로 문화적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문화의 선택적 수용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새터민이 외적인 귀인성향을 가지는지 내적인 귀인성향을 가지는지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환경적 스트레스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은 새터민의 궁극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터민의 심리적 특성과 적응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별로 없다. 그동안 이루어진 새터민들의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적응의 실태를 파악하거나 새터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는데 머무르고 있다(윤인진, 2000). 새터민의 적응 문제의 유형이

나 실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어있으나, 새터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바 없이 가설적으로 추정되거나, 혹은 소수의 새터민에 대한 면접 자료에 의지하여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새터민의 적응과정, 특히 사회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사회문화적 적응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언어 및 일상문화의 습득, 새로운 법·제도의 해석과 수용 등의 과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적응을 의미한다. 새터민 적응의 궁극적인 목표가 새로운 사회로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사회문화적 적응은 경제적, 심리적 적응 못지않게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회문화적 적응문제를 새터민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실태는 어떤 수준인가, 둘째, 새터민의 자아존중감 및 귀인 성향은 어떤 수준인가,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연령, 성별, 직업유무, 종교유무, 입국 후 경과기간, 가족동거 여부 등)을 통제한 후, 자아존중감과 귀인성향이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문제이다. 이러한 연구문제의 규명을 통해 최근 남한사회에 이주한 새터민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실태를 파악할 뿐 아니라, 이들의 적응을 자아존중감 및 귀인성향이라는 심리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여 새터민 적응과정을 이해하는 데 보다 세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문화적응 관점에서의 새터민 적응

새터민 적응에 관한 연구는 새터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새터민 적응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50명 이내의 소수의 새터민들에 대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김영운, 박종철, 이우영, 1996; 박미석, 이종남, 1999; 이소래, 1997; 이종석, 1996; 한만길, 1999). 이들 연구는 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자료의 크기와 대표성 면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새터민이 매해 300명 이상씩 입국한 2000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수가 다소 확대되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박현선, 2003; 윤인진, 김숙희, 2005;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 2001;

전우택, 윤덕용, 엄진섭, 2003; 채정민, 한성열, 2003).

그 동안 이루어진 새터민의 연구들은 주로 새터민들이 경험하는 적응상의 문제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한 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적응의 정도를 연령별, 성별, 입국시기별의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비교하였다.

선행 연구들이 다른 새터민의 적응은 크게 경제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심리적 차원의 적응으로 구분될 수 있다. 경제적 차원의 적응은 경제적 수준 변화를 비롯하여 자신들에게 익숙한 경제체제, 경제적 가치체계 또는 경제적 가치의 창출방법의 변화와 적응현상을 의미한다(Berry, 1988). 취업, 직장문제, 생활비 마련 등과 같은 생계와 관련하여 이들의 적응과제는 사회주의 체제와는 완전하게 다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해하고 여기에 소속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적응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집단 간, 개인 간의 관계 변화와 모국어 대신에 새로운 정착지의 언어를 습득하고 적응하는 현상, 종교 활동의 변화, 전통적 가치관과 교육방법의 변화, 대대로 전수되어 온 기술의 포기 및 변화와 이들에 대한 적응현상을 의미한다(Berry, 1988). 즉 일상적 생활환경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생활양식과 문화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관습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적응이란 지리적 이주 및 문화적 이질성에서 비롯되는 정체성 혼란이나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정서 상태와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이나 심리적 적응에 대해서는 비교적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진 반면,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해서는 실증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편향성은 새터민의 가장 큰 당면과제가 경제적 적응이며, 적응의 결과가 심리적 문제로 표출된다는 점에 기인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든 면접 조사를 통해서든 탈북자들이 스스로 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 직장문제, 생활비 마련 등과 같은 생계와 관련된 문제들이다(박미석, 이종남, 1999; 장혜경, 김영란, 2000). 또한 우울, 불안, 소외감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는 새터민의 전반적인 적응정도를 반영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심리적 적응의 문제가 많이 연구되어졌다(채정민, 김종남, 2004; 한인영, 2001; 한인영, 이소래, 2002).

그러나 새터민 적응의 궁극적인 목표가 새로운 사회로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경제적, 심리적 적응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적 적응이다. 사회문화적 적응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언어 및 일상문화의 습득, 새로운 법·제도의 해석과 수용 등의 과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결국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의 기반을 형성하고 이러한 적응을 용이하게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개인과 가족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여 적응하는 과정을 살펴 본 초기 연구들은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동화(assimil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초기 동화이론가인 Gordon(1964)은 이주민들이 문화적 동화, 구조적 동화, 정체성 동화, 태도수용적 동화, 행동수용적 동화, 시민적 동화 단계를 거쳐 새로운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흡수, 수용하면서 주류사회에 편입된다고 보았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 이주민이나 소수민족들은 그들 고유의 특성을 잃고 주류사회에 녹아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제 1차 이민러시를 이룬 유럽출신의 사람들이 세대가 진행될수록 고유한 민족적 색채를 잃고 교육, 직업, 언어, 결혼 등의 측면에서 미국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전우택, 2002).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남미, 아시아 등 비유럽권 이민자들의 대거 이주로 미국의 제 2차 이민러시가 시작되면서 동화이론은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유럽계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이민자들의 적응과정을 설명하는데 동화이론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공통된 문화 속에 편입되어 수렴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착기간이 길어지고 세대가 바뀌어도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며 심지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전우택, 2002).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은 동화(assimilation)라는 개념 대신 'acculturation' 개념을 소개하게 되었다. 문화변용, 문화접변, 문화적응 등으로 번역되는 acculturation은 새로운 문화를 무조건 흡수하거나 이전의 가치를 새로운 가치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문화의 요구를 선택하고 수정하는 통합적 과정을 의미한다(Buriel, 1993; Patel, Power, & Bhavnagri, 1996). 문화적응은 단일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의 각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Jain & Belsky, 1997). 즉 생활의 어떤 측면은 빨리 변화하고 어떤 측면은 변화가 더디게 나타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

새터민의 적응을 동화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새터민의 성공적인 적응은 북한에서의 생활양식이나 문화대신 남한의 문화를 가능한 한 빨리 흡수 수용하여 주류사회의 질서에 편입되는 것이다. 북한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버리고 새로운 사회의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사회화되는 것이 적응의 과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새터민의 정착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에서는 새터민들에게 자신을 유치원생으로 생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새롭게 배우라고 교육한다고 한다¹⁾.

반면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새터민의 적응을 이해한다면, 새터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무조건 남한사회의 질서에 편입되거나 남한사회의 문화를 흡수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성장하면서 습득한 생활양식과 제3국에서의 생활경험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문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선택적으로 창조해가는 것이 적응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적응의 과제는 새로운 사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과제이기도 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는 비단 새터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 후 남북한 사회의 심리적 통합의 대 전제이기도하다(차재호, 2000; 한성열, 2000).

2. 새터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새터민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정신건강(채정민, 김종남, 2004; 한인영, 2001; 한인영, 이소래, 2002), 신체적 건강(윤인진, 김숙희, 2005), 취업여부나 소득 등 경제적 특성(윤인진, 1999), 주관적 적응만족도(윤인진, 1999; 장혜경, 김영란, 2000) 등에서 접근하며, 크게 세 가지 관련요인을 지적한다.

첫 번째로 적응과 관련되는 요인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다. 연령이나 성별, 북한에서의 교육수준 등과 같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은 적응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인들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에서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적응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된다(이기영, 2000; 전우택, 2000). 이는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층과 여성,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변화에 보다 융통적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며, 또한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가족규모, 가족동반여부, 결혼여부, 사회적 지원 여부 등이 새터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박미석, 이종남, 1999; 윤인진, 김숙희, 2005; 한인영, 이소래, 2002). 대체로 선행연구들은 가족을 동반한 탈북자들이 단독으로 온 탈북자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적응에 유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을 통해 받는 정서적 지지와 보호가 사회문화적 적응이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학자들은 가족을 동반하여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경우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적응의 차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적응의 차이로 인해 가족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영수, 2000). 북한의 일상적 생활세계에는 엄격한 가부장적 규범

이 남아있어서 성별, 세대별 위계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박현선, 2003; 안연진, 2002; 이기춘 외 6인, 2001), 생계부양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남편과 새로운 역할을 쉽게 수용하는 부인사이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김영수, 2000).

세 번째로는 국가의 지원, 후원자와의 관계 등 사회적 지원체제와 관련된 요인이다. 새터민의 경우 난민과 마찬가지로 정착에 사용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 이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새터민에게는 하나원을 통한 교육훈련 지원 뿐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제공하는 주거지원, 가족규모를 고려한 생계비 지원 등이 제공된다. 탈북자의 수가 많지 않았던 1990년대 초반 입국자와 그 이후 입국자를 비교한 윤인진(1999)은 정착금, 취업훈련 및 지원, 주거지원 등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관대하게 이루어졌던 1990년대 초반의 입국자들이 이후 지원이 축소된 시기에 입국한 새터민들에 비해 취업 및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더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함으로써 새터민 적응에 정책적 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3. 새터민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본 연구는 새터민의 적응 영역 중에서 특히 사회문화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사회문화적 적응이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의 기반이 되는 일차적인 적응과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회문화적 적응은 통일 후 남북한 사회의 심리적 통합이라는 궁극적 과제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적응이나 심리적 적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증연구가 덜 축적되어 있어 보다 활발한 실증 연구가 요구된다.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의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에 대하여 밝혀진 바는 없다. 특히 새터민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가설적 차원에서 논의되었을 뿐, 실증적 자료로 분석된 바는 거의 없다. 따라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다른 연구주제나 연구대상자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대어 새터민의 심리적 특성과 적응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나 내적인 귀인성향은 개인의 레질리언스 요소로 지적된다(Kalil, 2003). 사회적인 위험환경이나 심리적인 위험환경(at risk environment)에 처한 개인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1) 2005년 1월 4일 하나원 직원과의 면담내용 중 인용.

성숙하고 성공할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레질리언스는 새터민의 적응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새터민이 겪은 환경은 탈북 전 북한에서나, 탈북 후 제3국가에서나, 입국 후 남한에서나 결코 살아가기에 용이한 환경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삶을 영위하는가를 살펴보면, 레질리언스는 유용성이 높은 개념이다.

개인의 레질리언스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의 개인적 특성 중 긍정적인 기질, 사회적 반응성, 능력, 그리고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성향은 위기나 위협요인이 있을 때 이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성취를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박현선, 1998; Greene, 2002, 양옥경, 최소연, 송인석, 권지성, 양후영, 염태산 역, 2004).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과 같이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귀인은 대인지각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실제 행동의 원인이나 결과 그 자체보다는 그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지각하여 해석하느냐를 지칭한다. 행동에 대한 귀인은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안정적인 것과 불안정적인 것,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된다(Weiner, 1979). 개인의 성패의 원인을 능력이나 노력 등과 같이 자신의 내부적인 것으로 연결짓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내적인 귀인 성향은 개인의 탄력적 적응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박현선, 1998).

따라서 새터민의 자아존중감과 귀인성향은 이들이 남한사회에 이주하여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중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내적인 귀인을 하는 새터민의 경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보다 탄력적으로 사회문화적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북한의 식량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에 입국한 18세 이상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새터민 신문사의 협조를 얻어 신문이 배달될 때 같이 배달하여 신문사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2005년 3월 28일부터 배부되기 시작하여 5월 6일까지 300부를 배부하여 총 195부가 회수되었다. 신문을 구독하는 서울 경기지역의 새터민들을 중심으로 한 편의표집법으로 대상을 수집하였으므로 본 조사의 표본이 전체 새터민들을 대표하는 것

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측정도구

남한생활에의 적응 및 어려움을 조사하는 부분은 장혜경, 김영란(2002)의 연구를 참고로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련된 문항을 선정하였다. 장혜경, 김영란의 연구에서 사용된 총 12문항을 사회적 활동제약(4문항), 개인적 차별(3문항), 사회적 소외(3문항), 정서적 문제(2문항)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활동제약은 남한사회의 언어나 문화에 대한 적응, 사회활동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개인적 차별은 남한 사람들로 부터 느끼는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소외는 사회적 지위, 남한사회에 대한 소속감,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적응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표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정서적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 영역에 대하여 후속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들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 Cronbach's α 분석을 한 결과, 전체 α 는 .78, 사회적 활동제약의 α 는 .72, 개인적 차별의 α 는 .70, 그리고 사회적 소외의 α 는 .65로 대체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새터민의 심리적 특성에 관해서는 자아존중감과 내적 귀인성향을 조사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 척도 9문항은 Rosenberg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귀인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Levenson의 귀인성향척도를 안귀덕(198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내적지향, 타인지향, 우연지향의 3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의 8개 문항 중 3문항씩 선별하여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9이며, 내적 귀인성향의 신뢰도 계수는 .56으로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이상의 척도에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척도에서 측정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설문어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종교, 현재 하는 일, 현재 가족과 함께 사는 지 여부 등의 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탈북시기 및 입국시기, 탈북 시 가족동반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는 연령을 년으로, 종교는 유무 이분변수로, 직업은 유무 이분변수로, 입국 후 기간은 월로, 가족동거여부는 이분변수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자아존중감 및 내적 귀인성향과

〈표 1〉 새터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95)

변 수	응답범주	빈 도(%)	변 수	응답범주	빈 도(%)
성 별	남 성	81(41.54)	탈북시기	1995년 이전	1(0.51)
	여 성	107(54.87)		1996	7(3.60)
	무응답	7(3.59)		1997	12(6.15)
연 령	20세 미만	11(5.64)		1998	54(27.69)
	20-29세	47(24.10)		1999	35(17.95)
	30-39세	85(43.59)		2000	19(9.74)
	40-49세	24(12.31)		2001	19(9.74)
	50-59세	8(4.10)		2002	15(7.70)
	60세 이상	6(3.08)		2003	19(9.74)
	무응답	14(7.18)		2004	7(3.59)
가족동반탈북여부	혼 자	74(37.95)	무응답	7(3.59)	
	가족동반	91(46.67)	입국시기	1995년 이전	1(0.51)
	무응답	30(15.38)		1997	2(1.03)
결혼지위	미 혼	65(33.33)		1998	5(2.56)
	기 혼	117(60.00)		1999	1(0.51)
	무응답	13(6.67)		2000	4(2.05)
종 교	없 음	40(20.51)		2001	19(9.74)
	기독교	86(44.10)		2002	39(20.00)
	불 교	7(3.59)		2003	55(28.21)
	천주교	11(5.64)		2004	60(30.77)
	기 타	30(15.39)		2005	1(0.51)
	무응답	21(10.77)	무응답	8(4.10)	
	현재 하는 일	회사원	24(12.31)	수입의 원천	근로소득
공장근로자		15(7.69)	정착금보조		36(18.46)
일용근로자		31(15.90)	기초생활수급		41(21.03)
구 직		21(10.77)	기 타		5(2.57)
가 사		6(3.08)	무응답		25(12.82)
학 교		29(14.87)	현재 누구와 함께 사는가	혼 자	75(38.97)
취업학원		30(15.38)		가족과 함께	109(55.90)
검정고시학원		6(3.08)		무응답	11(5.13)
기 타		7(3.59)			
무응답		26(13.33)			

같은 심리적 특성이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새터민의 적응에 관련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이 된 새터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요약된 바와 같다. 전체 195명 중 남성이 43%, 여성이 57%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0대가 24%를 차지하였다. 탈북시기별로 보면 1997년 이전에 탈북한 응답자는 20명(11%)인 반면, 1998년 탈북한 응답자가 54명(29%), 1999년 탈북한 응답자가 35명(18.62%)으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식량난이 가장 심했던 1998년부터 탈북자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입국시기별로 보면, 2004년 입국자가 60명(32%)으

로 가장 많이 포함되었고, 전체응답자의 약 90%가 2001년 이후에 입국하여 정착한 지 5년 이내인 사람들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새터민들 중에 혼자 탈북한 사람은 74명(38%)이며, 가족과 함께 탈북한 경우는 91명(47%)로서 가족과 함께 탈북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되었다²⁾. 혼인상태는 미혼이 65명(34%)이고 기혼이 117명(60%)이다. 새터민의 직업은 회사원이나 공장근로자 등이 39명(20%)으로 조사되었고, 건축현장 노동자나 파출부 등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31명(16%), 현재 구직중인 경우와 학원에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는 51명(26%)이었다. 검정고시학원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5명(18%)이다. 새터민의 종교는 기독교 86명(44%), 천주교 11명(6%), 불교 7명(4%), 기

2) 2004년 통일부 자료(북한이탈주민 정착제도 개선)에 의하면 2003년 입국자 중 가족동반 입국은 약 44%를 차지하였음.

타는 30명(15%), 무교는 40명(20%)이다.

수입의 원천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86명(44%), 정착금 보조 36명(18%),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월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41명(21%)이다. 새터민 중에 약 44%만이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많은 새터민들이 응답을 하지 않아 무응답 비율이 높았다. 무응답은 결혼지위, 현재 하는 일, 수입의 원천 등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응답경향은 본 연구 자료의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터민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미흡한 실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 자료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무응답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특별히 조심스러운 태도가 요구되며, 본 연구결과를 탐색적 차원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실태

새터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10개 문항으로 질문을 하였다. 항목별로 1점부터 5점까지로 측정된 이 조사결과는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상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별로 조사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응답은 척도의 중간값인 3점을 내외하는 정도로 나타나 적응의 문제가 특별히 두드러진 문항은 보이지 않아,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상의 문제는 보통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별로 보았을 때,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온 문항은 '다

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꺼릴 때가 있다(M=2.69)'이며, 가장 높게 나온 문항은 '직업 및 직장생활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다(M=3.22)'였다(〈표 2〉 참조).

전반적으로 적응문제의 심각성은 영역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적응문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영역은 개인적 차별과 관련된 영역이다. 새터민들은 자신들을 대하는 남한주민의 태도나 행동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이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터민들은 북한식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신분이 노출된다(윤인진, 1999). 남한주민들은 새터민들이 가족과 조국을 버리고 온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이들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언제든지 배신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편견은 새터민이 남한주민들과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직장을 구하는데 방해요소가 된다.

2. 새터민의 자아존중감과 내적 귀인성향

새터민의 심리적 특성은 자아존중감과 내적 귀인성향의 두 차원으로 알아보았다.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30.1점으로 척도의 중간값인 27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새터민들은 자기 자신을 크게 자랑할 것은 없어도, 자신이 남들보다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성격이 좋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회에 유용하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며, 좋은 사람이며, 최소한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탈북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도 결국 남한사회에 들어와 살게 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토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아의식과 자신감은

〈표 2〉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

(N=195)

영역	문항	M	SD
사회적 활동계약	1. 나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3.05	1.08
	2.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꺼릴 때가 있다.	2.69	0.87
	3. 남한에서 사용되는 낯선 언어(한자어나 외래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3.01	0.80
	4. 남한의 문화에 적응이 안 된다.	2.80	0.68
	합 계	2.89	0.69
개인적 차별	5. 사람들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서 차별을 느낀다.	3.10	0.75
	6. 직업 및 직장생활을 따라가기에 어려움이 있다.	3.22	0.66
	7.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2.97	0.53
	합 계	3.10	0.63
사회적 소외	8.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3.00	0.65
	9. 남한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2.90	0.61
	10. 남한사회의 법·제도에 적응이 안 된다.	2.81	0.62
	합 계	2.90	0.61
총 합 계		3.00	0.22

〈표 3〉 새터민의 자아존중감 및 내적 귀인성향 평균 (N=195)

문항 (척도의 범위)	M	SD	최 소	최 대
자아존중감 (9~45점)	30.10	4.46	17	45
내적 귀인성향 (9~45점)	30.92	3.97	21	42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자원이 될 수 있다.

귀인성향은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으로 나뉜다. 내적 귀인은 세상을 자신의 노력, 능력 등으로 원인을 돌리는 한편 외적 귀인은 운, 우연, 재수, 타인의 잘못이나 압력, 사회적 강요 등으로 원인을 돌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적 귀인을 하는 사람은 위기와 문제 발생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기 상황이나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에서는 9개 문항의 합계점수가 30.92점으로 척도의 중간값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내적 귀인성향이 외적 귀인성향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3. 새터민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새터민의 자아존중감과 내적 귀인성향이 사회문화적 적응에 미치는 결과는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새터민의 자아존중감이나 내적 귀인성향, 혹은 사회문

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가족동거 여부, 직업유무, 종교유무, 입국 후 경과기간 등을 통계적으로 통제된 후 심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모델 1에서는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모델 2에서는 관련변수들의 통제 후 자아존중감과 내적 귀인성향이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적 활동제약에 대한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가족동거 여부와 입국 후 경과기간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새터민의 경우에는 사회적 활동 제약이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거나 덜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입국 후 시간이 오래될수록 남한사회의 문화에 대한 적응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제약 부분에서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터민의 적응에 시간적 요소가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자아존중감과 내적 귀인성향의 영향력을 부가적으로 살펴본 모델 2에서는, 내적 귀인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활동 제약의 문제를 더 낮게 인식하거나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활동제약의 문제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가족동거 여부의 영향력이 모델 2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가족

〈표 4〉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의 위계적 회귀분석

(N=163)

	사회적 활동제약		개인적 차별		사회적 소외	
	모델1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델2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델1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델2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델1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델2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여성=1)	-.06 (.11)	-.05 (.11)	-.19 (.10)	-.18 (.10)	-.17 (.10)	-.17 (.10)
연령(세)	.01 (.01)	.004 (.01)	.002 (.01)	.00 (.01)	.003 (.01)	.001 (.01)
가족동거	-.25* (.11)	-.14 (.11)	-.02 (.10)	.05 (.10)	-.07 (.10)	-.003 (.10)
입국 후 기간(월)	-.10* (.04)	-.08* (.04)	-.06 (.03)	-.05 (.03)	-.08* (.03)	-.07* (.03)
종교유무	-.10 (.12)	-.14 (.12)	.01 (.11)	-.01 (.11)	.05 (.11)	.03 (.11)
직업 없음	.07 (.12)	.02 (.11)	-.06 (.11)	-.09 (.10)	-.07 (.10)	.03 (.10)
자아존중감		-.01 (.01)		-.01 (.01)		-.02+ (.01)
내적귀인		-.05** (.02)		-.03+ (.02)		-.02 (.01)
상 수	3.04 (0.25)	4.85 (.58)	3.29 (.23)	4.55 (.55)	3.00 (.22)	4.32 (.52)
F	2.25*	3.47**	1.13	1.69	1.48	2.17*
R ²	0.04	0.11	0.01	0.03	0.02	0.05

+p <.1; *p <.05; **p <.01; ***p <.01.

동거 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내적 귀인 성향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내적 귀인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가족동거 집단 내적 귀인 평균 31.92, 비동거 집단 30.55, $t=2.33$ $p<.05$).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새터민의 경우, 내적 귀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내적 귀인 성향이 추가된 모델에서는 가족동거여부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적 차별과 관련된 모델에서는 통제변수들만 있는 모델 1에서나 자아존중감 및 내적 귀인 성향이 추가된 모델 2에서나 유의한 변수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델 자체의 유의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새터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편견이나 차별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주목한 요인들이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소외에 관련해서는 통제변수들만 있는 모델 1은 모델로서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별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입국 후 경과기간이 관습적 유의수준에서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발견되었다. 자아존중감과 내적 귀인 성향이 추가된 모델 2에서도 마찬가지로 입국 후 경과기간이 사회적 소외와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적합성 지수도 다소 상승되었다($F=2.17$, $p<.05$).

전반적으로 볼 때,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련성을 보인 통제변수는 입국 후 경과기간이었다.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적응은 입국 후 기간에 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문화적 적응에 시간적 요소가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심리적 자원 변수로서는 내적 귀인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활동제약에서 문제가 더 낮은 경향이 있었다. 개인적 차별이나 사회적 소외와 관련해서는 관습적인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내적 귀인성향과 개인적 차별($t=-1.82$, $p=.07$),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소외($t=-1.68$, $p=.09$)사이에 약한 부적 상관성이 발견되어 심리적 자원과 사회문화적 적응 간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추정해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내적 귀인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적 차별에 관련된 문제를 덜 경험하거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소외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보다 체계적인 표집과 큰 표본크기를 갖춘 자료로 검증되어야 할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실태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양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사회문화적 적응을 사회적 활동제약, 개인적 차별, 사회적 소외의 세 가지 영

역에서 살펴 본 결과, 새터민의 적응 문제는 모두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크게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새터민 연구에서 설문조사가 가질 수 있는 한계이다.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거의 모든 설문 내용에서 새터민의 응답이 중간값으로 수렴되는 경향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풀어내는 대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규범적인 대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혹은 자신의 의견을 치밀하게 분화시키는 대신 대다수가 따르는 의견이나 중간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새터민들은 신분상의 위협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 더 민감할 것으로 예측해볼 때, 이러한 응답 태도는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조심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는 탈북자 신문사를 통해 편의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남한사회에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보다 많이 표집되는 선택적 편의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즉 적응 문제가 심각한 새터민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해 볼 때, 표집방법의 문제가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실태 파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된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새터민 적응 문제가 학문적인 연구 결과로 뒷받침되지 않은 채 언론매체를 통해 과대 표현되거나 대표성이 없는 사례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논의되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일반적인 이민/이주에 따르는 문제와 새터민이 경험하는 특수성이 구분되지 않고 논의됨으로써 새터민의 적응 문제가 과대평가 되었거나, 시간에 따라 향상될 수 있는 새터민의 적응 양상이 간과된 경향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새터민에 관한 논의들은 새터민이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적 차이, 예를 들어 언어, 의생활, 식생활, 제도적 차이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적응 문제는 새로운 사회에서 보낸 시간에 비례하여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소외와 사회적 활동제약 영역에서 새터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입국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적응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새터민 적응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차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입국 후 시간이 오래되어도 새터민이 경험하는 혹은 인식하는 차별이나 편견 등의 문제는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활동제약이나 문화적 적응, 사회적 소외가 새로운 사회에서 살게 된 이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면 차별

이나 편견 등은 새터민의 특수성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일 수 있다. 새터민이 지각하는 편견이나 차별은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나 이주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현실에서 탈북자로서의 이주민인 새터민이 경험하는 문제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영역이며, 이러한 영역에서의 적응과 통합이 좀 더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인적 차별과 관련된 영역에서 본 연구는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나 심리적 특성 모두 개인적 차별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영역에서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후속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과정에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내적 귀인성향이 개인의 적응탄력성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된 새터민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으며, 외적 귀인성향보다는 내적인 귀인성향을 보다 높게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자기 가치를 긍정적으로 가지는 사람들, 그리고 행동이나 결과의 성패를 내적으로 귀인하는 사람들은 도전적인 삶의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인 성취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내적 귀인성향은 사회적 활동 제약에 부적으로 연관되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자신을 신뢰하는 새터민들은 이러한 영역에서 문제를 덜 경험하였다. 이는 삶의 환경이 질적으로 달라진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레질리언스를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된다.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유사한 적응 과제를 가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해석과 대처가 나타나는 방식은 새터민 개인의 내적 귀인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활동제약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개인적 차별 문제나 사회적 소외 영역에서 개인의 심리적 자원의 영향력은 관습적 통계유의 수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내적인 귀인 성향이 높은 사람도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차별이나 소외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지 못하며, 적응적 탄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같은 사회문화적 적응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활동제약과 차별·소외 문제는 서로 구별되는 차원의 사회적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자아존중감이나 내적 귀인 성향

이 적응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없는 영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이 중요해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심리적 자원과 개인적 차별, 사회적 소외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표본을 가지고 다시 세밀하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적 자원과 사회문화적 적응 사이의 단순상관관계를 보면, 내적 귀인성향은 개인적 차별($r=-.214, p=.003$), 사회적 소외($r=-.179, p=.012$)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소외($r=-.161, p=.025$)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³⁾.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자원이 차별과 소외의 영역에서도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자원과 개인적 차별 및 소외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터민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심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의 인과관계에 관한 것이다. 성별이나 입국 후 기간과 같은 외생변수들은 사회문화적 적응과의 관계를 역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자아존중감이나 내적 귀인과 같은 성향은 사회문화적 적응과 역인과적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경우, 이들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질 것이며, 또한 이러한 성공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귀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터민의 자아존중감, 내적 귀인은 사회문화적 적응과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원이 사회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정하였으나, 꼭 시간적 인과성을 전제하지는 않았다. 개인의 레질리언스가 개인의 심리적 속성일 수도 있으나, 동시에 적응의 과정을 나타내는 개념일 수도 있다 (Kail, 2002)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과적 방향성을 양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유의해야 할 점은 사회문화적 적응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적응을 주관적인 인식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이 실제 경험과 주관적 평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차별하는 것을 느낀다”와 같은 문항은 주관적 인식에 의한 평가를 내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새터민이 스스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주관적인 사회문화적 적응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보다 면밀

3) 자아존중감과 내적 귀인 성향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r=.410, p=.000$)가 있어서, 이들이 회귀식에 동시에 투입되어 상호 역효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터민의 적응과 주관적 인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사 도구와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적응상태 뿐 아니라 적응정도를 객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이러한 지표와 사회문화적 적응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을 편의표집 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히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서 무응답이 많아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는 면접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명성을 강조하여 응답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새터민으로 하여금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새터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새터민의 적응을 사회적 활동 제약, 개인적 차별, 사회적 소외 등의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과 이들의 적응을 자아존중감 및 내적 귀인이라는 심리적 특성과 연결시켜 분석,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영수(2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 *사회과학연구* 9, 102-117.

김영윤, 박종철, 이우영(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박미석, 이종남(1999). 탈북가족의 남한가족 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논총*, 17(1).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 발달 메커니즘. *청소년학연구*, 5(3), 147-165.

박현선(2003).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도서출판 한울.

안귀덕(1986). 귀인성향, 지각학습풍토 및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학습태도와 학습성취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연진(2002).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문화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카톨릭대학 석사학위논문*.

양옥경, 최소연, 송인석, 권지성, 양후영, 염태산 역(2004). *사회복지와 탄력성. 나눔의 집*. 출판사. Roberta R. Greene (Ed.) Resiliency: An Integrated Approach to Practice, Policy, and Research.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Inc.

윤인진(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511-549.

_____(2000).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2), 123-184.

윤인진, 김숙희(2005). 국내 탈북자의 건강 및 의료. *보건과 사회과학*, 17, 149-182.

이기영(2000). 탈북자가족의 남한사회 적응과정. *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2001). *통일에 앞서 보는 북한의 가정생활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소래(1997). 사회적 지지가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5(1), 209-247.

이종석(1996).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통일연수원*.

장혜경, 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40-13.

전병재(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107-130.

전우택(1999).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제32회 *국내학술회의*(99. 11. 30) 발표논문집(99-05) (pp. 40-64). *통일연구원*.

_____(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_____(2002). 탈북자들을 통하여 보는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전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6(1).

전우택, 윤덕용, 엄진섭(2003).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 생활 실태조사. *통일연구*, 7(1), 155-208.

차재호(2000). 통일에 있어 심리적 통합의 전망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엄 자료집*.

채정민, 김종남(2004).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41-63.

채정민, 한성열(200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01-126.

통일부(2004). *북한이탈주민 정착제도 개선*.

_____(2005).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관련 통계. <http://www.unikorea.go.kr><통일소식>대북정책초점.

한만길(199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교육 적응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성열(2000). 북한의 문화적 특성과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발표문*.

- 한인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 78-94.
- 한인영, 이소래 (2002).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비교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10, 121-142.
- Berry, J. W. (1988).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A conceptual overview. In *Ethnic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with immigrants, refugees, native peoples, ethnic groups and sojourners*. J. W. Berry & R. C. Annis. (Eds.). Berwyn, PA: Swets North America.
- Buriel, R. (1993). Child-rearing orientations in Mexican American families: The influence of generation and sociocultural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87-1000.
- Gordon,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ain, A., & Belsky, J. (1997). Fathering and acculturation: Immigrant Indian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873-883.
- Kalil, A. (2003). Family resilience and food child outcom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Center for Social Research and Evaluation,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New Zealand.
- Patel, N., Power, G., & Bhavnagri, P. (1996). Socialization values and practices of Indian immigrant parents: Correlates of modernity and acculturation. *Child Development*, 67, 302-313.
- Weiner, B. (1979). A theory of motivation for some classroom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3-25.

(2006년 3월 6일 접수, 2006년 6월 20일 채택)